

6월 르완다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르완다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르완다의 선교 현장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협력하는 교회와 학생들과 교사들,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있음은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르완다 선교 현장을 세워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격려가 되고, 계속해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후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1. 일대일 아동 후원프로그램(Child Sponsorship)

제가 협력하고 있는 레인보우 학교(Rainbow Buhoro School)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영어책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후원프로그램을 위해 학교장과 협의해서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학교 성적이 우수한 10명의 학생을 추천받았습니다. 10명의 아이에게 매달 작은 후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후원교회(이태원장로교회)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섬김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2.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만화 전도 책자를 가지고 지방으로 길거리 전도를 다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의 만남, 울퉁불퉁 좋지 않은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들, 보건소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만나 만화 전도지를 드리면 귀한 보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좀 더 많은 분을 만나서 전도지를 전하고 싶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국에서 제작해서 가져오고 싶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2년 선교사 비자를 갱신했습니다. 아프리카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르완다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메일과 전화 문자로 알려줍니다. 문자를 받고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가 와서 여권을 들고 이민국으로 찾으러 가면 됩니다. 제가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 르완다의 종교법이 강화되어서 외국인이 종교활동과 관련된 비자를 소유하지 않으면 종교활동(설교, 세미나, 훈련)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는 제재를 받고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추었어도 설교 내용에는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4. 제가 협력하는 장로교 키갈리 노회 40여 명의 목회자와 함께 교회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예배를 시작으로 1부와 2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많은 교회가 폐쇄된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5가지의 현안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함께 고민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향후 전략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제목)

1. 르완다는 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밤과 낮의 기온 변화로 인해 목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계속 현지 약을 먹는데 사역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목 건강을 위해 그리고 영어예배와 현지어 예배의 설교사역과 교회 교육 세미나와 교회 교육 자료 번역사역과 행사지원 사역들이 잘 진행되도록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학교와 약속한 일대일 아동 후원 사역(매달 2~3만원)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더 많은 아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3. 지금까지 재정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르완다 강 일 용 선교사 드림